

# 한전,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장 '빅스포 2025' 개최

한국전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규모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 '빛가람국제전력 기술엑스포(BIXPO 2025)'를 열고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 신기술 등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BIXPO 2025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라는 주제로 기술과 산업,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융복합 에너지 엑스포로 진행된다.

5일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사로 나서 글로벌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정관계 인사와 국내외 전력사 CEO, 주한 대사, 대학총장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신기술 언팩(Un-packed) 행사에서는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 신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리벨리온은 인공지능(AI) 추론 반도체, 빈센은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BIXPO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신기술 전시에 참가해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 리더관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 등을 운영한다.

글로벌 유니콘 6사 포함 국내외 166개 기업 전시참여 40여개 국제컨퍼런스, TEDx 강연, 일자리 박람회 진행

대기업관에는 LS그룹, 포스코,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중소기업 부스도 함께 구성돼 에너지산업의 전 밸류체인과 AI·로봇·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함께 선보인다.

KEPCO관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전시하여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지역특화산업관에선 10개 광역 지자체별 특화산업과 혁신 중소기업 제품·솔루션을 전시한다.

글로벌 리더관에서는 미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AI 유니콘 WEKA와 이스라엘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유니콘 StoreDot 등 국내외 유니콘기업 6개사와 CES 2025 혁신상 수상 기업 3곳이 참가해 AI와 에너지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전시회장 내에 마련된 BIXPO 광장에서는 ▲Future TIPS League ▲나의 성공 스토리 ▲초격차 스타트업 IR 등의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 중소기업에게 투자유치, 경영 Insight 공유,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의 41개 전문 컨퍼런스도 열린다. 6일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 컨퍼런스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이 열린다. 서밋에서는 S&P Global의 로건리시 이사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KEPCO R&D 컨퍼런스"에서는 한전의 연구개발(R&D) 비전과 DC 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AI 융합 기술 등 5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전의 연구개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 조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발명기술혁신대전'에는 한전과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이 발명한 총 78개의 우수 발명품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는 품질혁신관을 새롭게 조성해 한전의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공기업 최초로 개최되는 'TEDx KEPCO'에서는 AI, 인문 등 6개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 인간관계, 각종 불균형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과 지역 50여개 유망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



회도 함께 진행된다. 지역의 우수인력과 구인기업이 연결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BIXPO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신기술과 지역·사람을 연결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해 에너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K-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11월 3일 구청공 광양경제자청(왼쪽에서 두번째)과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글로벌 기업인 티더블유에스(TWS) 문건철 한국지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양경제자청, 글로벌기업 TWS와 투자상담 추진

### 향후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3일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글로벌 기업인 티더블유에스(TWS) 한국지사장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광양경제자청이 지난 9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위치한 티더블유에스 본사를 직접 방문한 이후 추진 후속 협의로, 향후 투자 일정과 구체적 사업계획, 그리고 행정·임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더블유에스는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거점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가전용 배터리, ESS 등을 전문적으로 생

산하는 광둥성 500대 기업이다. 이날 광양경제자청을 방문한 문건철 한국지사장은 "중국 본사는 글로벌 시장 전략적 배치 차원에서 광양만권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광양경제자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중국 광둥성에서 ESS분야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티더블유에스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투자 결정을 잘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2025 취업멘토링 페스타'를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연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광주청년 일자리통(通) 협약식 ▲취업 인플루언서 '제이콥'의 취업특강 ▲잡(JOB)답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 ▲현직자 멘토링 ▲청년정책존 ▲1:1 상담존 ▲청년스토리존 ▲청춘플레이존 ▲스탬프투어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형 청년일자리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청년센터 등 13개 기관과 '광주청년 일자리

## 광주시, 5일 '청년 취업멘토링 페스타' 연다

### 시청 1층 시민홀서... 취업 특강·토크콘서트 등 프로그램 다채

통(通)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광주청년들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통합서비스 체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취업 인플루언서 제이콥은 '꿈을 비즈니시처럼 설계하고 실행하는 법'을 주제로, 현실적인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노하우를 전한다.

또 '잡(JOB)답 토크콘서트'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청년, 광주의 힘'을 주제로 시청 현안과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고민과 제안에 답하는 소통형 토크가

진행된다. 부대행사인 '현직자 멘토링'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환경공단 ▲블루밍하트 ▲한가죽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의 현직자가 참여해 전기·공기업·IT·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직무 멘토링을 들려준다.

'청년정책존'에서는 ▲광주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드림은행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미래내일일경협사업 수행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정책과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1:1 상담존'에서는 ▲재무(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 ▲주거(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회) ▲취업(광주일자리종합센터)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임재일 기자

전라남도는 6~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제1회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기회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협력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업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

## 전남도, 6~7일 제1회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서 창업·기업 지원 컨설팅 등 다채

사는 전남지역 벤처창업기업, 예비창업자, 투자사, 대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막식을 비롯해 5개 분야 60개 부스 전시, 창업과 기업지원 컨설팅 4개 프로그램(500개 사 상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Startup Campus), 오픈이노베이션, 창업 컨설팅, 투자자 미팅,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개막식에는 주요 내빈과 벤처창업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남 창업기업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도민과 기업이 참여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필 기자

## 전남지역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주인공 찾습니다

### 수출 확대 기여 우수기업 발굴... 11일까지 모집

전라남도가 지역 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 전남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대상 기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은 지역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출로 전남을 빛낸 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시상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있는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올해 수출 실적

보장(www.jexpo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접수 기업의 수출실적과 공적사항을 종합 검증한 뒤 11월 말 전남 농수산물 수출기업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올해 9월까지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6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며 "전남이 케이(K)-푸드 수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수출탑 시상을 통해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